

# 신안서 전국 첫 섬 랠리 산악자전거대회

신안에서 전국 최초로 섬 랠리 산악자전거대회가 열린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다음달 12일부터 이틀 동안 신안 증도와 임자도에서 '2009 전남도지사 배 아일랜드 켈리자전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열린다.

남도 섬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이번 대회는 해안 일주도로를 이용, 두 개의 섬을 완주하는 경기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참가 규모는 선수와 가족을 포함해 1천여 명으로 예상되며, 전국에서 선수·동호인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내달 12~13일 해안 일주도로 이용 증도~임자도 완주

선수·동호인 등 1천여명 참여...염전·요트·승마 체험도

대회 첫날에는 증도에서 크로스컨트리 개인 경기가 개최되고, 대회 둘째 날은 임자도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이 진행된다. 개인전은 첫날 증도 기록과 합산해 이뤄진다.

또한, 임자도에서 개최되는 둘째 날 대회에서는 본 대회와 함께 장애인 참가하는 2인승 경기도 함께 진행된다. 대회

기간 중에는 선수 가족 등 참가자를 위해 증도 염전 체험, 소금 박물관 견학 등 무료체험 행사가 열리고, 임자도에서는 요트와 승마 무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대회가 개최되는 증도와 임자도는 세계 5대 규모의 태풍 염전과 전국에서 가장 긴

해변을 보유하고 있는 등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무한한 경쟁력이 있는 천혜의 섬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선수와 동호인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자전거연합회(http://bike-life.or.kr, ☎02-420-5430, bikelife@hanmail.net)로 9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조정훈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대회에 이어 진도와 나주에서도 MTB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여러 섬을 활용한 섬 랠리대회를 개최해 전남을 산악자전거의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 설기현·김남일 허정무號 승선

내달 5일 호주와 평가전

해외파 10명 등 23명 발표

이동국 재신임...차두리 제외



〈설기현〉 〈김남일〉

'스나이퍼' 설기현(풀럼)과 '진공청소기' 김남일(빗셀 고베)이 허정무 감독의 낙점을 받아 축구 대표팀에 합류했다. 또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포함해 해외파 10명이 대표팀에 뽑혔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27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5일 호주와 평가전에 나설 대표 선수 명단 23명을 발표했다.

호주와 평가전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최종예선을 마친 이후 대표팀이 지난 12일 파라과이와 친선경기에 이어 두번째 치르는 A매치이다.

이번 명단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설기현과 김남일 등 해외파 선수들의 대거 발탁이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A매치 일정을 놓고 대표 차출 거부 직전까지 가는 첨예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9월5일 호주와 평가전이 정상적으로 열리게 되자 허정무 감독은 "(호주 평가전 다음날 열리는) K-리그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생의 길을 찾겠다"면서 국내 K-리그 선발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외파들의 기량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설기현, 김남일 외에 박지성과 공격 쌍두마차인 박주영(AS모나코), 이근호(이와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한 이청용(볼턴), 조원희(워진), 수비수 이영표(알 힐랄), 김동진(제니트), 이정수(교토)도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소집 대상 해외파 예비 명단 15명에 들었던 수비수 차두리(프라이부르크)는 소속팀의 요청에 따라 선발하지 않았고 안정환(다렌스터)과 조재진(감바 오사카), 신영록(부르사스포르), 김근환(요코하마)도 이번에는 발탁하지 않았다.

국내파로는 최근 스코틀랜드 셀틱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은 미드필더 기성용(서울)과 파라과이와 평가전 때 2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던 공격수 이동국(전북)이 변함없이 허정무 감독의 신임을 받았다.

또 '인발 달인' 염기훈(울산), 김치우(서울)과 수비수 조용형, 김민수(제주), 골키퍼 이운재(수원) 등도 뽑혔다.

허정무 감독은 대표 선수가 많았던 국내 구단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오장은(울산)과 이강진(부산), 조동진(성남), 최효진(포항)을 해외파로 대체했다. /연합뉴스

# '베이징 금' 최민호 탈락

세계유도선수권 60kg급

26일 막을 올린 제26회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는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호(한국마사회)가 초반 탈락하는 등 첫 날부터 이번이 연승했다.

2008 베이징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대회 첫날 남자 60kg, 66kg급 경기에서 모두 4강에도 가지 못했다. 남자 60kg급에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이번 대회 금메달이 유력했던 최민호(한국마사회)와 국제유도연맹(IJF) 세계랭킹 1위인 투드비히 파이셔(오스트리아)가 경기 초반 탈락했다.

최민호는 2라운드 32강전에서 경기 시작 2분34초 만에 파벨 페트리코브(체코)에게 안오금찍기 한판으로 졌다.

베이징올림픽 결승에서 최민호에게 한판으로 져 은메달을 땀던 파이셔는 64강 첫 경기에서 엘리오 베르데(이탈리아)에게 패하면서 역시 이번의 희생양이 됐다. /연합뉴스



육탄 저지

아스날의 니콜라스 벤드너(가운데)가 27일(한국시간) 영국 아스날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홈경기에서 셀틱의 글렌 루벤스(왼쪽)와 개리 카드웰의 밀착수비에 공격이 저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볼트 100m 재출격

내일 새벽 취리히대회

과연 또 쫓 수 있을까.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23·자메이카)가 29일 새벽 4시(이하 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또 100m 레이스에 출격한다.

지난 17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2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에서 '인간 한계'에 근접하는 9초58이라는 세계신기록을 세운 지 12일 만에 다시 트랙을 달군다.

볼트가 출전할 대회는 2009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골드리그 5차 시리즈인 '벨트 클래식 취리히'로 레지그르نت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 '돌부처' 이창호 오목 실력은?

내달 1일 명인전서 팬서비스

'돌부처' 이창호 9단이 내달 1일 강원 정선군 하이원리조트(하이원) 강원랜드호텔 도깨비 광장에서 오목에 도전한다.

27일 하이원에 따르면 제37기 명인전 부대행사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목과 틸레이 바둑, 팬 사인회, 포토 타임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틸레이 바둑은 프로기사와 지도대국을 원하는 일반인이 고대

로 3수씩 착수하면서 도전하는 방식으로 이창호 9단과 강동운 9단이 팬들의 도전을 받는다.

이번 이창호의 '반외(盤外) 나들이'는 2006년 7월 27일에 제2기 한국물가정보배 결승 1국의 해설자로 나선 이후 3년 만이다.

이창호의 오목 실력은 바둑TV를 통해 내달 19일 정오에 방송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28일(금)

- ▲제4회 중등축구연맹회장배 국제축구대회(13:40·MBC)
- ▲제8회 아시아 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14:30·MBC ESPN)
- ▲2009 프로야구(SK·삼성)(18:10·KBS n스포츠) (LG·한화)(18:15·X-sports) (하어로즈·롯데)(18:15·SBS스포츠) (KIA·두산)(18:20·MBC ESPN)
- ▲2009 세계유도선수권 DAY-3 김재범출전(22:00·SBS스포츠)

# 광주 김란숙 금1, 은1명중

한국 장애인양궁 세계선수권 5연패 쾌거

한국 장애인양궁이 김란숙(광주장애인이양궁협회·사진) 선수의 선전에 힘입어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5연패의 쾌거를 달성했다.

김란숙은 지난 22일 체코에서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개인전 2위의 맹활약으로 한국팀 우승의 주역이 되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총 금 2개·은 2개·동 1개를 획득, 영국과 함께 공동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김란숙은 이화숙·고희숙과 함께 출전한 여자 단체전(리커브)에서 총 193점을 합작,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개인전(리커브 스탠딩)에서는 100점을 찍은 메달을 추가했다. 팀 동료 이화숙은

개인전 동메달(84점)을 획득했다. 남자단체전(컴파운드)에선 이역수·고성길·권현주가 215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김란숙은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관왕에 올랐으며,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선 단체전 준우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체고 남빛사에서 지난 16일부터 7일간 열린 이번 대회는 35개국 3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했고, 한국은 21명의 선수단(임원 6명·선수 15명)이 출전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영화안내 HAPPY TIME

인기영화 즐거운시간 보내세요

<h3>메가박스</h3> <p>www.megabox.co.kr</p> <p>1관 국가대표 (12세) 최고급관</p> <p>2관 해운대 (12세)</p> <p>3관 나의 로맨틱 가이드 (15세)</p> <p>4관 국가대표 (12세)</p> <p>5관 지.아이.조 (15세)</p> <p>6관 불신지옥 (15세)/요가학원 (15세)</p> <p>7관 코코샤넬 (15세)</p> <p>8관 소피의 연애메뉴얼 (12세)/퍼펙트캐치 (15세)</p> <p>9관 블랙 (연세)</p>	<h3>콜롬버스 시네마</h3> <p>www.joybc.com/1588-7941</p> <p>1관 10억 (15세)/업-더빙 (연세)</p> <p>2관 불신지옥 (15세)</p> <p>3관 국가대표 (12세)</p> <p>4관 국가대표 (12세)</p> <p>5관 4교시 추리영역 (15세)/아이스에이지-3 (연세)</p> <p>6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연세)/아이스에이지-3 (연세)</p> <p>7관 해운대 (12세)</p> <p>8관 퍼블릭에너미 (15세)</p> <p>9관 지.아이.조 (15세)</p> <p>10관 해운대 (12세)</p>	<h3>하미 시네마</h3> <p>www.hamcinema.co.kr/1588-9120</p> <p>1관 요가학원 (15세)</p> <p>2관 코코샤넬 (15세)</p> <p>3관 국가대표 (12세)</p> <p>4관 퍼펙트캐치 (15세)/라르그원치 (18세)</p> <p>5관 오편-천사의비밀 (18세)</p> <p>6관 해운대 (12세)/퍼블릭에너미 (15세)</p> <p>7관 아이스에이지-3 (연세)</p> <p>8관 지.아이.조 (15세)</p> <p>9관 국가대표 (12세)</p> <p>10관 해운대 (12세)</p>	<h3>씨너스 전대</h3> <p>www.cinusa.co.kr/1544-0070</p> <p>1관 지.아이.조 (15세)</p> <p>2관 오편-천사의비밀 (18세)</p> <p>3관 해운대 (12세)</p> <p>4관 소피의 연애메뉴얼 (12세)/요가학원 (15세)</p> <p>5관 코코샤넬 (15세)</p> <p>6관 블랙 (연세)</p> <p>7관 국가대표 (12세)</p>	<h3>제일 시네마</h3> <p>www.jeillcinema.com/www.jeillcinema.co.kr</p> <p>1관 국가대표 (12세)</p> <p>2관 국가대표 (12세)/아이스에이지-3 (연세)</p> <p>3관 퍼블릭에너미 (15세)</p> <p>4관 코코샤넬 (15세)</p> <p>5관 오편-천사의비밀 (18세)</p> <p>6관 해운대 (12세)</p> <p>7관 지.아이.조 (15세)/아이스에이지-3 (연세)</p> <p>8관 퍼블릭에너미 (15세)</p>
--	---	--	--	---